

<업무보고 : 경기평택항만공사>

업 무 보 고

I. 일 반 현 황

☐ 설립목적

평택항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, 부두건설 및 운영관리, 기타 배후지 개발사업 등의 공익기능 담당

☐ 연 혁

- '01. 3. 5 법인설립조례 공포(조례 제3092호)
- '01. 7. 16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
- '01. 9. 14 평택항 서부두 운영개시

☐ 조 직

○ 이 사 회

- 상 임 : 1명(사장)
- 비상임 : 8명(경기도 2, 평택시 2, 민간출자업체 4)

○ 기구 및 인력 : 1부 2팀, 현원 11명

※ 하역업무(34명), 전기실관리(3명) 및 경비업무(15명) 등 주요업무 외부전문업체에 위탁처리(Outsourcing)

☐ 주요기능

- 항만운송·보관·여객·하역사업
-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추진 및 관리

☐ 자본금 : 50억원

- 지방자치단체 : 25.5억원(지분율 51%)
 - 경기도 : 18억원(지분율 36%)
 - 평택시 : 7.5억원(지분율 15%)
- 민간기업체 : 24.5억원(지분율 49%)

- 우련통운(주) : 10.75억원(지분율 21.5%)
- (주)영진공사 : 10.75억원(지분율 21.5%)
- 대주중공업(주) : 1.5억원(지분율 3%)
- 장금상선(주) : 1.5억원(지분율 3%)

□ 평택항 서부두 운영

○ 부두규모 : 3만톤급 선박 동시접안 가능

- 부두길이 : 480m
- 하역능력 : 연간 1,130천톤
- 면 적 : 183,357㎡(야적장 151,727㎡, 에이프런 11,819㎡, 도로 19,811㎡)
-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부터 임차사용
 - 임차기간 : '04. 9. 1~'09. 8. 31(5년)
 - 임 차 료 : 1,029백만원/년

○ 보유장비

구 분	수 량			비 고
	계	자사	임차	
모바일항만크레인	2	-	2	본선하역장비 (250톤, 350톤)
일반크레인	1	-	1	" (150톤)
리치스태커	7	3	4	육상이송장비(45톤)
지 계 차 등	6	-	6	화물적출입 장비(7.5톤외)

Ⅱ. 주요사업 운영실적

□ 화물처리실적

○ 총 괄

(단위 : TEU)

구 분	목 표	실 적			비 고 (’03실적)
		10월까지	연말추정	목표대비	
화물처리량	160,000	145,897	173,000	108%	151,009

- '04년 화물처리 예상물동량은 17만 3,000TEU로 목표 16만TEU 대비 8%, 전년 실적 15만 1,009TEU 대비 15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항로별 화물처리('04. 10. 31까지)

(단위 : TEU)

구 분	합 계	%	수 출	수 입	비 고
합 계 (%)	145,897	(100%)	74,411 (51%)	71,486 (49%)	
평택/천진	41,227	(28%)	22,450	18,777	
평택/청도	43,074	(29%)	20,855	22,219	
평택/영성	20,360	(14%)	10,211	1,0149	
평택/대련	10,235	(7%)	4,755	5,480	
평택/일조	10,215	(7%)	5,212	5,003	
평택/상해	9,713	(7%)	5,660	4,053	
평택/위해	6,653	(5%)	2,856	3,797	
평택/기타	4,420	(3%)	2,412	2,008	홍콩, 하이퉁 세코우 등

② 이용선사 및 취항항로

○ 이용선사 : 4개선사

- 컨테이너 선사 : 2개사 장금상선(주), 홍아해운(주)
- 카페리선사 : 2개사 대룡해운(주), 황해훼리(주)

○ 취항항로 : 7개항로(주15회)

- 평택 / 청도 : 주2회
- 평택 / 천진 : 주3회
- 평택 / 대련 / 위해 : 주2회
- 평택 / 상해 : 주1회

- 평택 / 영성 : 주3회
- 평택 / 일조 : 주3회
- 평택 / 홍콩 / 세코우 : 주1회

③ 운영수지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목 표	실 적			비 고 (’03실적)
		10월까지	연말추정	목표대비	
매 출 액	11,140	10,169	12,369	111%	10,009
운영수지	200	555	755	378%	607

- 연간수입은 123억 6,900만원으로 목표 111억 4,000만원 대비 11% 증가가 예상되며, 운영수지는 전년실적 6억 7백만원 대비 24% 증가한 7억 5,500만원의 이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.

④ 주요사업 추진실적

① 24시간 하역체제 구축

- 인력충원 및 장비 확충을 통한 24시간 하역시스템 구축으로 항만경쟁력 강화
- 추진실적 : 구축완료(’04. 2)
 - 인력충원 : 7명(27명 → 34명)
 - 장비확충 : 하버크레인 추가투입(재래크레인 교체투입)

② 냉동컨테이너 장치시설 확충

-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기존 시설능력을 초과됨에 따라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설확충
- 시설확충 현황
 - 위 치 : 평택항 서부두 배후부지
 - 규 모 : 냉동컨테이너 수용능력 72개 증설(총 111개)
 - 사 업 비 : 180백만원
- 추진실적 : ’04. 4. 완료

③ 대형 하역장비 추가투입

- 종사원의 안전확보와 신속한 화물처리를 위하여 기존하역 장비를 대형장비로 교체투입
- 추진실적 : 투입완료('04. 2.)
 - 장 비 명 : 항만모바일크레인(300톤급)
 - 도입방법 : 임차운영
 - 사 업 비 : 696백만원/년(기사 3명 포함)

④ 하역인력 전문화로 생산성 제고

- 컨테이너, 자동차 및 철강 등 화물별 하역방법이 서로 상이함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의 전문화 필요
- 추진실적 : 컨테이너 하역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평택항운노동조합과 협의 중

※ 노조내부 사정으로 다소 지연

⑤ 대 고객서비스 제고

-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화물처리 및 물류정보 제공
 - 신속한 화물처리로 항만서비스 경쟁력 제고
 - 인터넷을 통한 터미널운영정보 실시간 제공
 - 컨테이너 X-Ray 검색기 설치·운영
 - 컨테이너 화물검사를 위한 내장품의 적출·입 작업 및 상·하차 등에 따른 물류 비 절감
 - 신속한 통관으로 항만 경쟁력 제고
 - 국비 4,348백만원을 투입 X-Ray검색기 1대 설치운영(국비)
- ※부지면적 1,200여평, 건축면적 105평

Ⅲ. 현 안 사 항

① 부두운영사업 민영화 추진

- 공사의 부두운영사업부문을 민간출자업체에 이양함과 동시에 민간 출자지분정리를 통하여 100%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
- 부두건설, 물류시설 건립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항만 SOC 확충을 통하여 평택항 조기활성화에 기여

□ 추진배경

- 공사 설립시 체결된 컨소시엄 협약에 따라 민간출자업체 요구
※ 평택항서부두운영사업자선정응모를위한컨소시엄구성에관한협약 제12조제3항
- 해양수산부TOC(부두운영사) 선정지침
※ 지자체의 부두운영사업 참여지분 25% 이하로 제한

□ 추진방향

		민간부문(하역사업)			
경기평택항만공사	분할 ⇒	- 민간지분 49%	지분	주식회사(분할신설)	
		- 공공지분 51%	양도	- 하역업 포괄승계	
		⇒ 항만공사(기타사업)	양수	⇒ 경기평택항만공사	
- 민간지분 49%		- 민간지분 49%		- 평택항개발사업	
- 공공지분 51%		- 공공지분 51%			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- '04. 11월 기본계획 수립
- '04. 12월 분할계획서 작성, 각 출자기관 협의 및 조정,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
- '05. 1월 조례개정, 자산실사, 주식가치 산정,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
- '05. 2월 지분양수도 계약체결 및 정산, 총회개최, 분할등기 및 설립등기

② 평택항 서부두 평택/당진간 경계분쟁 관련

- '04. 9. 23 평택항 서부두에 대한 평택/당진간 경계분쟁과 관련하여 현재에서 관할권이 당진군에 속한다고 결정·선고함에 따라,
- 공사에서 운영중인 평택항 서부두의 부두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임.

□ 예상문제점

【부두운영사업관련】

- 항만시설은 국가(해양수산부)가 직접 건설·관할하고 있으므로 지자체간 경계변경이 부두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.

※ 현재 평택항 서부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차사용 중에 있으며
통관, 출입국관리, 검역등 항만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는 중앙정부가
담당하고 있음.

【기타부문】

- 정관에 따라 주사무소 주소지를 평택시로 이전 필요
- 노노간 갈등으로 파업 및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
- 항만의 경계분리 및 명칭 문제 등으로 인한 파장이 장기화될 경우 항만 경쟁력 저하 우려
- 일부 지방세의 귀속문제(평택시→당진군)

□ 대처방안

- 공사 주사무소를 평택시 관할로 조속 이전 추진
- 평택항의 경쟁력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및 평택시와 공동 대응방안 마련